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식

Gwangju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News

[사회서비스원] 시작되는 작지만 큰 변화

[긴급돌봄서비스] 돌봄119

[남구구립늘봄어린이집] 우리의 봄은 365일



저는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캐릭터 **살구**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광주형 사회서비스 실현!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함께 합니다.**



사서로운 : **사회**서비스원의 새**로운** 이야기

vol.04

발 행 일 2022.03.15
발 행 처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발 행 인 조호권 원장
편 집 인 경영기획실장
홈페이지 gwangju.pass.or.kr
전 화 062.607.5200
팩 스 062.607.5219
주 소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0 우체국보험회관 8층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궁금하다면?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CONTENTS

여는 글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조호권

04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다 함께 줍강'



사회서비스원	3월 25일, 시작되는 작지만 큰 변화	06
아동	소유하지 않고, 대여하는 시대	08
	우리의 봄은 365일	10
청소년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다 함께 줍강'	12
장애인	'여우꿈' 여기서 우리들의 꿈을 함께	14
	정월대보름, 소원이 이루어져라	16
노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개시	18
	서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리와 함께	22
	광주지역 취약 어르신 생활용품 지원	23
	광산구의 새바람	24
노숙인	거리 노숙인, 함께 일어나요	26

위라벨 직장문화 조성 맞춤형 컨설팅



시선집중	돌봄119	28
	위라벨 직장문화 조성 맞춤형 컨설팅	30
	연말정산 실무교육	32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6년 연속 종합평가 '우수'	34
	종사자 직무역량강화교육 실시	36
서비스원 사람들	뻘한 돌봄보다 더 FUN한 돌봄!	37

겸손하며, 잘 준다는 것



찾아가는 현장	겸손하며, 잘 준다는 것	42
	기고문	44
잠깐, 쉬어가세요	편견을 깬 우정	46
	멋지게 나이드는 기술	47
ECO GPASS	ESG경영	48
청렴	청렴 Q&A	50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아 어느덧 3월입니다. 검은 호랑이, 흑호는 열정적이고 리더십이 강하여, 큰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서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서로운 가족 모든 분들이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2022년, 원하시는 목표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더 가까이에서 더 믿음직스럽게 모두 함께 누리는



사회서비스원을 사랑해주시는 ‘사서로운’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아 어느덧 3월입니다. 검은 호랑이, 흑호는 열정적이고 리더십이 강하여, 큰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서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서로운 가족 모든 분들이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2022년, 원하시는 목표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을 맞이하며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좋은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새롭게 서비스원의 가족이 되신 광산구 종합재가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광주사회서비스원의 개원이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25일 시행됩니다. 산업화, 세계화로 대변되는 20세기가 제 1,2차 세계대전 이후를 정점으로 시작된 것처럼, 코로나19가 엄습하여 돌봄 공백이 현실화된 지금, 21세기 대변혁의

시대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후대에서는 21세기 변화의 시작을 바이러스, 메타버스, 인공지능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출범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광주시의 돌봄 서비스 공백 해소와 복지 사각지대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더불어 돌봄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서로운 가족 여러분, 2년이 지나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신(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가족 형태 다변화와 사회적 위험 상황의 다양화로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복지 영역에서 새로운 사





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작년 한 해 임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온 기반 위에서 광주광역시의 돌봄 공공성 확대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이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호의 사업 지평을 설계하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표준화된 사회서비스 운영모델의 개발을 목표로 확정하고 로드맵을 마련하여 빠르게 노를 저어야 하는 해입니다. 우리 사서로운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결합해 나아간다면 바람과 파도도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주인정신으로...

올 한 해, '더 가까이에서 더 믿음직스럽게 모두 함께 누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조 노 권

지난 2021년 8월 31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취지를 담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으며, 오는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서비스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법률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회서비스원 3월 25일, 시작되는 작지만 큰 변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여함.
- 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제7조부터 제23조까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근거, 사업 범위, 사업의 우선 위탁, 정관, 임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28조**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유형 등의 적정성과 우선위탁 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서비스원 정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제3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제3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에 대하여 업무성과 평가를 하도록 함.
- 제40조** 이 법에 따른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법률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예산확대

사회서비스원은 광역 지방정부가 출연하여 설립·감독하는 공공기관(재단법인)으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이다. 따라서 시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시범사업에 의한 예산 지원이다. 그러나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매년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 책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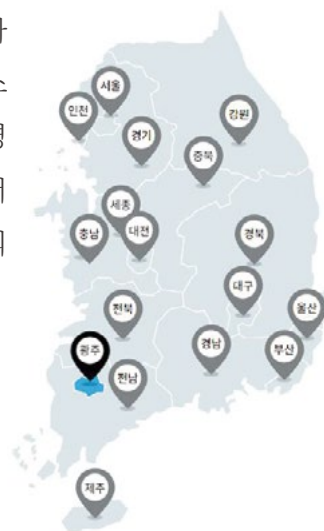
법률이 제정됨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부여되었다. 또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고, 사회서비스 지역 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확충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이 가능하다.

종사자 처우개선의 선두역할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하는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에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소유하지 않고, 대/여/하/는 시대

도서관하면 아직도 책을 떠올리는 생각에서 벗어나자.
어느덧 대여서비스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우리가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도조차 헛갈릴 정도로 일상 깊숙이
들어왔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 쉽게 싫증 내는 우리
아이 장난감도 대여할 수 있다면 어떨까? 궁금하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해보자.



‘키움뜰 장난감도서관’이란?

양육자의 장난감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 경**
험을 더해주기 위해 **1,400여 점의 장난감**과
1,700여 권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는 곳

—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사회서비스원이 함께합니다!
—

문의

광주긴급아이 돌봄센터 혹은 키움뜰도서관
T. 062)714-3635(내선 1번)



이용대상

- 광주광역시 시민으로 자녀(만 5세 이하)를 둔
가정

이용시간

- 화요일~토요일 : 14:00~17:30
- 수요일 : 14:00~19:3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일요일/공휴일
(휴관일에는 대여 및 반납 불가)

이용방법

-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검색 후 회원가입
(주민등록등본 첨부 필수) > 회원 승인 완료 후
대여 가능!
- 연회비 : 1만원 (감면대상자는 홈페이지 확인)

대여기간

1회 장난감 2점을 2주간 대여(월 3회)

대여 및 반납 주의사항

- 온라인 대여는 오후 6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대여품목은 다음날 오후
2시부터 방문 대여
- 온라인에서 예약한 장난감을 대여하지 않으면
2일 후 자동 취소
- 대여한 장난감 2점을 반납하여야 대여 가능
- 대여 및 반납은 대여 물품의 상태를 운영요원과
함께 확인





늘봄어린이집 원훈·보육철학

- 서로 사랑하는 아이·신나게 놀이하는 아이·꿈을 키우는 아이
- 지혜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자신감 있는 행동으로 실천한다.
-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협력하는 마음을 가진다.
- 밝고 맑은 성품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한다.





아이가 행복한 놀이터 늘봄어린이집



취미, 여가, 성장운동, 생활 체육

하루일과



어린이집등원



늘봄의 특별한 조리실



자유놀이활동



사회관계 형성



바깥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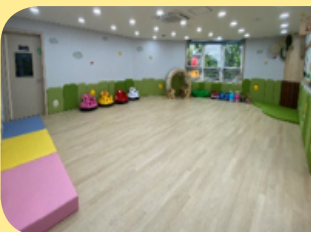
어린이집 하원

즐거운 늘봄

늘봄어린이집 특별한 조리실

-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제철과일 채소를 이용하여 자연식품을 제공해요
- 조리원이 나트륨 저감화 교육을 받고, 염도계로 국과 음식의 염도를 측정하여 요리해요
- 키즈노트는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늘봄어린이집을 소개합니다



늘봄어린이집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하루 2회이상 **교실**과 **장난감**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중앙로 21 (중흥S클래스리버티 내) · 문의전화 : 062)710-1100

길거리, 산책로, 여행지에서 마치 놀이를 하듯, 취미활동처럼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있다. 걷거나 쓰레기를 주우면서 스쿼트나 런지 운동 자세를 취하고,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지구를 위한 행동. 지구와 지구인의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행동, 이제는 생소하지 않은 줍깅, 다함께 돌봄센터와 '다 함께 줍깅'에 주목하자.

‘다 함께 줍깅’ plogging

광주북구다함께 돌봄센터(양산사랑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겨울방학 을 맞이하여 종일 돌봄을 실시하고 있는 북구다함께돌봄센터 양산사랑으로에서는 점심 식사 후 실외프로그램으로 ‘다 함께 줍깅’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줍깅이란 스웨덴어의 줍다(plocka up)와 영어단어 달리기(jogging)의 합성어인 ‘플로깅(plogging)’ 봉사활동으로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줍깅은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기후 후 이상으로 부정적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지구 돌봄 캠페인과 궤를 맞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거양득의 친환경 활동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다 함께 줍깅 친구들은 10명씩 2조로 나누어 아파트 주변과 놀이터의 환경 지킴이가 되어 줍깅 시간을 가졌다.

또한, 줍깅 후 환경을 지키는 실천 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며 쓰레기 분리수거, 침 뱉지 않기, 나무 꺾지 않기, 일회용품 쓰지 않기, 종이 아껴쓰기 등을 실천하기로 약속하였다.



줍깅은 특별한 날 하는 것이 아니다. 산책, 여행길, 출퇴근길 등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떨어진 쓰레기 줍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HIP환경과 운동의 일상화, 인증 캠페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함께하자.



‘다 함께 줍깅’에 동참하기

- ❶ 일회용 비닐 대신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에코백, 종량제 봉투를 준비한다.
- ❷ 다회용 장갑과 집게, 가위 등을 준비해 안전하게 쓰레기를 줍는다.
- ❸ 재활용 여부에 따라 쓰레기를 분류해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다.

TIP





여우꿈,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여기서 우리들의 꿈을
함께 키워봐요

하나의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아이와 노인, 청년, 중년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연령마다 장애를 가진 장애인 존재한다.
이렇게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집중하는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은 '장애'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을 가진 소수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다. 장애로 인한 일상적 역량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킴으로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이 비장애 여성의 삶과 비교되지 않도록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담과 사례지원, 개별 역량강화교육을 비롯하여 자조모임, 멘토링, 지역사회연계서비스 등 여성장애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도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브랜드명 공모를 통해 "여.우.꿈 - 여기서 우리들의 꿈을 키워요"를 론칭하여 당사자의 자주인 삶이 지역사회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사업시행 초기에는 당사자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금은 당사자의 역량을 기초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직접 다른 장애 여성의 멘토가 되어 서비스의 질과 당사자의 성장을 함께 꾀한다. 직접 강사로 활동하는 참여자들은 "막상 시작하



게 되니 멘티로 참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고, 재능기부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다. 취미로 코바늘과 뜨개질을 했던 내가 강사가 되어 지역주민을 가르친다니 너무 설렜다", "처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심장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긴장 되었고, 가르쳐야 한다는 압박이 컸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긴장 했지만 지역주민을 만나고 소통하며 스스로의 꿈이 자라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이용자분들도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지역사회에 베풀고 외부 강사 활동을 적극 했으면 좋겠다."라며 생생한 떨림과 감동의 이야기를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생활이 이제는 평범하지 않고, 줄어든 활동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여.우.꿈.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은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생각하며 당사자와 함께 하기위해 노력하겠다.



정월 대보름 ~
보름달 보고 소원 빌어요 ~
소원아 ~ 이루어져라 ~
압~!



광주광역시장애인보호작업장

정월대보름

소원아 이루어져라



예부터, 우리 조상은正月 대보름달을 보며 일 년 농사의 계획을 세우고 건강과 풍요를 기원해 왔으며, 설날, 추석보다 중요한 명절로 여겼다고 한다. 요즘은 전통 세시 풍속을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거나 온 라인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우리 보호작업장도 코로나19로 인해 변해버린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기관 내 취식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못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출퇴근 시간의 변경도 잦았으며, 이용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외행사도 거의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작년 우리 보호작업장은 개원 이래 최대의 수익금을 올린 한해이기도 하며, 공예사업 부문에서 언택트로 다양한 지역과 기관에 공예 키트를 홍보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용인 이동지원 및 공예수업을 위해 KT&G 차량 공모사업에 지원해 종사자 및 이용인들의 발이 되어 줄 경차를 지원받기도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기관의 종사자 및 이용인 모두 합심하여 힘을 모은 덕분이다.

2022년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보호작업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직업적응훈련과 작업 활동을 이어가며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용인들이 코로나19가 사라져 예전처럼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럼 깨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단단한 부럼을 깨면 건강도 지켜주고



부럼 깨는 소리에 귀신들이 깜짝 놀라 도망간다는 임미숙 원장의 이야기에 모두 두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였으며, 조심스럽게 살살, 또는 시원하게 쿵쿵 부럼을 깨부수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이용인들의 모습에서 진심을 담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 정월 대보름 더위팔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난스레 옆자리의 동료와 서로 '내 더위 사가라'며 즐거워하는 이용인들의 모습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노력과 모두의 간절한 바람 때문일 것이다. 올해도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안팎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부럼 깨기 행사 후 저녁 하늘에서 보름달을 찾아 각자가 원하는 소원을 빌어보자고 이용장애인들과 약속했는데 크고 밝은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을까.



지난 2월 14일 오전,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이번 현판 제막식은 남구 사동에 터전을 두었던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체육관 1층으로 이전한 것과 더불어, 2022년 1월부터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함을 기념하여 진행되었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개시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이전 현판 제막식 진행





“노인학대가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광주광역시”

행사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조호권 원장을 비롯하여 이달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전은옥 고령사회정책과장, 주경님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노인부양부담 증대 및 가족 간 갈등으로 발생한 노인학대신고 사례 접수 및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학대피해노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더불어 학대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시보호하고 심신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광주광역시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조호권 원장은 “광주광역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학대가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광주광역시를 만들어갈 것이며, 노인 권익옹호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함께하게 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바란다.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소개합니다.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 급속한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간 갈등과 노인 부양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학대사례를 전문 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사 / 업 / 내 / 용

- 노인학대 상담사업 : 노인학대상담 서비스, 일시보호 및 의료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및 법률지원 연계 등
- 노인학대예방교육사업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노인 인권교육 실시
- 홍보사업 : 이동상담, 캠페인 및 사진전시회 등
- 협력체계구축사업 : 지역사회판정위원회, 행정기관 및 경찰청 업무협력 등

이 / 용 / 대 / 상

광주광역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7

연 락 처

T.062-655-4155(신고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광주광역시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이 / 용 / 안 / 내

만 65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쉼터 입소 문의가 가능합니다.

사 / 업 / 내 / 용

-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숙식제공 등 쉼터 생활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 학대피해노인의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 학대행위자와 가족 등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등

입 / 소 / 기 / 간

- 4개월 (2개월 이내 기간 연장 가능)
- ※ 퇴소 후 원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지정된 전국 양로시설로 연계 가능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다. 서구종합재가센터에서는 이를 위해 방문도우미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가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돌봄 공백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가돌봄 서비스 대상자 외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구 지역내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도우미플러스'를 소개 한다.

서구종합재가센터

서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리와 함께



문의 : 서구지역사회내 통합돌봄 서비스 (방문도우미플러스)
제공기관 : T.062)716-2400

필요성

- 와상, 병원 퇴원 예정환자 등 국가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부족한 가사 공백에 대해 청소, 식사준비 등 가사 전반에 대한 보충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가생활의 질 향상 도모
- 사회적 입원이 예상되는 재가 대상자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불필요한 입원 방지

운영기관

- 서구종합재가센터, 18개동 행정복지센터, 서구자활센터

서비스 이용기간

- 2022년 1월~12월(연중)

서비스 내용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신체활동지원 : 이동도움 등

서비스 대상

- 서구 지역내 거주자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서비스 신청방법

- 대상자 상담 및 신청 (18개동 행정복지센터)
- 등록관리 (행정복지센터, 서구청 스마트통합돌봄)
- 서비스연계 및 서비스 수행 (서구종합재가센터)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서구종합재가센터)

서비스 비용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서구종합재가센터는 2021년부터 서구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기관으로 방문도우미플러스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정해진 서비스 외에 대상자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에 맞는 자원연계 및 타기관 서비스 연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구민들 옆엔 서구종합재가센터가 늘 함께 할 것이다.

지난 2월 17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에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LG생활건강과 함께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노인을 위해 '생활용품 지원 배분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기관 **광주지역**

취약 어르신 생활용품 지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LG 생활건강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LG생활건강과 함께하는 취약노인을 위한 생활용품 지원 배분행사 실시

이번 지원은 생활용품 꾸러미 약 16,000여 개에 달하는 규모로, 광주 지역 내 19개 수행기관으로 배분하여 댁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용품 꾸러미는 생활용품, 식료품, 화장품 등 LG생활건강의 후원을 받아 구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12,089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대상자의 생활정도 및 외곽지역 거주 등의 종합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보호 취약 노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요보호 취약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

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다 건강한 생활로 위기를 이겨내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는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고립감, 소외감 등으로 어렵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한 뿌듯함과 기업에서 어르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느끼며 따뜻한 돌봄 현장이 되었다며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속적으로 광주 지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9개 수행기관에 지속적인 자원개발 및 연계를 위하여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자원연계 리스트를 제작하는 등 취약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광산구종합재가센터

광산구의 새바람

살랑살랑 봄바람은 온기와 의욕을 실어 나릅니다.

주변을 생각하는 온기와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의욕이 가득한 봄.

4월, 광산구 종합재가센터가 따뜻함을 담아 개소합니다.

종합재가센터의 운영은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직영시설로 운영되는 종합재가센터는 장기요양(방문요양), 틈새돌봄, 광주만의 IoT스마트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기관입니다. 2020년 북구, 서구를 시작으로 시작된 따뜻한 돌봄은 22년에는 광산구, 추후에는 남구와 동구까지 펼쳐질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는 곳에 상관없이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믿음직스러운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재가센터란?

- 다수의 돌봄서비스를 한 개의 기관에서 통합·연계 제공
공·방문요양, 틈새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성격의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 공공돌봄기관으로 비영리성을 추구
-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자로서 돌봄의 연속성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
- 장기요양서비스와 더불어 긴급돌봄서비스, 틈새돌봄 서비스 등 공공의 돌봄서비스를 제공
- IoT 기반 비대면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광역시 면적의 약 절반을 차지하면서 도농복합의 형태를 띠는 광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가까운 곳에서 공공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월곡동에 광산구 종합재가센터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촘촘하고 따뜻한,
원스톱 돌봄을 기대해
주세요!

광산구 종합재가센터

주 소 광산구 풍영로 83, 2층

교통편 안내

흑석사거리(동)(도보 5분)
송정98, 수완12, 선운101,
송정33, 임곡89, 첨단92,
첨단94



TEL. 062) 716-5600 / FAX. 062) 716-5605

추진방향

- 재가서비스 통합·연계·직접 제공
- 표준운영모델 마련 및 확산
- 사업운영 규모화 : (현행) 소규모 단일 서비스 → (개선) 서비스 통합 운영
- 서비스 접근성 향상 : (현행) 분절적 접촉·이용 → (개선) 원스톱 상담·이용
- ▶ 촘촘한 돌봄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 제공
공공영역(틈새돌봄) 서비스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 따뜻한 돌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 원스톱 돌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서비스 연계

차별화 내용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는
믿음직스러운 공공기관입니다!

- (따뜻한 돌봄) 틈새돌봄 등의 공적 서비스 제공
- (행복한 일자리)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요양보호사들로 안정적인 근무 지속 가능
- 공공에서 운영하는 질 좋은 서비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 이용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 힘든 케이스도! 장기요양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아도! 돌봄서비스 제공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거리 노숙인,

66 함께 다시 일어나요 99

매일 밤 광주천, 광천터미널, 광주역, 송정역 등을 누비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거리 노숙인이 손 내밀면 언제든지 잡을 준비가 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의 **혹한기 집중 현장보호활동**



집중 보호 기간 동안 노숙 시민의 응급보호 체계 구축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현장보호활동 중에 만난 노숙 시민과는 먼저 상담을 통해 일시보호와 시설입소 등 이용 가능한 응급보호에 대해 안내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혹한기 키트**(침낭, 핫팩, 마스크, 담요, 간편식 등)를 지급하고, 수시로 안전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현장보호활동이란?

거리 노숙은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만나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취약상황 중 하나이다. 또한, 사망이라는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최소한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적극 현장을 찾아가는 활동이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를 ‘혹한기 대비 노숙인 집중 보호 기간’으로 선정하고 유관기관 (해병대 진우회, 자율방범대)과 함께 매일 밤 현장보호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1월, 열흘 동안 진행한 광주사회서비스원 임직원들과의 합동 현장보호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더 가까이에 서 더 믿음직스럽게 모두 함께 누리는 사회서비스’를 위해 진행한 활동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현장보호활동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숙 시민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더불어 거리에서 노숙 시민이 발견되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와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
위기사유로 인한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따뜻한 돌봄을 드리는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돌봄 119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돌봄을 드리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긴급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 지원이 가능하다.

① 코로나19 관련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7일
- 소득기준 : 해당없음
- 지원사유
 - 보호자의 확진 및 입원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
 - 본인의 자가격리 등으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고 돌봐줄 보호자 및 대체서비스가 없을 경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확진 등으로 시설 내 돌봄 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관련 지원

- 지원기간 : 30일 이내 100시간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사유
 - 갑작스러운 질병(수술) 및 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로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선정 대기 기간에 단기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위기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공백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돌봄지원팀(☎062-607-5232)**으로 문의 바란다.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내용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여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 내 돌봄 인력 지원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확정 시 가정 내에 돌봄 인력을 파견하여 식사, 주거, 안부 확인, 이동지원 등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돌봄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확진으로 돌봄 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시설에 돌봄 인력을 파견한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방법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전화 문의 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2019년 6월에 발표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복지혁신 권고문' 혁신과제 중 민주적 직장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일·생활 균형(워라벨) 직장문화 조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워라벨 직장문화 조성 맞춤형 컨설팅

일·생활 균형(워라벨)을 위한
컨설팅 진행

워라벨 직장문화 개선에 큰 기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중이나 여전히 장시간 근로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복지현장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및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



광주광역시를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기관 10곳을 추천받아 노무 컨설턴트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개편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며, 기관당 최대 3회기까지 지원한다.

노무컨설턴트는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소속 노무사로 사회복지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발적 윤리 행동부터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개선과제까지 골고루 포함하는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인식변화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조호권 원장은 “조직문화 혁신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에 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구성원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과 불편을 개선하는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우리원 역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에 앞장 서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2022년 1월 26일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시즌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했다.

연말정산 실무교육

광주사회서비스원,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추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실무교육 무료 제공

당초 1회기 진행을 계획하였지만 현장의 높은 수요로 1회기를 추가 개설하여 진행한 이번 교육은 연말정산 관련 주요개정 핵심내용과 연말정산 준비, 과세표준 계산, 결정세액 계산, 2021년 변경된 세부 사항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수요도가 높았다.

또한, 교육 전 의견수렴을 통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전반 뿐 아니라 기부금, 중간퇴사자 연말정산 처리와 같이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분과 세금감면조건, 연말



정산시 필요서류 등을 추가로 교육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연말정산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광주상공회의소를 통해 김우택 회계사(진성회계법인)와 박세준 세무사(중앙세무회계사무소)를 추천받아 교육을 진행했다. 박세준 세무사(중앙세무회계사무소)는 “수강생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 더 많은 내용을 욕심내서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서 “광주에 처음 왔는데



교육생들의 열의에 감동하여 훈훈하게 돌아간다.”라며 다음 교육을 기약하였다.

강의를 수강한 강미정(연두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연말정산 교육을 받고나니 시설의 전체적인 연말정산의 흐름을 알게 되었다.”면서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올해는 환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팀에서는 광주시민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시민복지리더 발굴 및 전문성 있는 현장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계획 수립과 운영을 위해 복지 현장에 있는 분야별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교육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에 대해 꾸준히 논의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교육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6년 연속 종합평가 '우수'

“광주시민의 욕구에 기반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광주광역시, 6년 연속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특히, 성과평가 정책특화지표 중 ‘양질의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 거둬



광주광역시와 광주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광주시민의 욕구에 기반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의 비전과 3대 전략목표 및 12개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1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전국 최초로 이용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한 이용자 욕구에 기반한 선정절차 개선과 품질향상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광주광역시만의 운영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제공인력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개선방안 마련’은 정책특화지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지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광주광역시만의 차별화된 노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실 수요자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선정절차 개선 및 욕구에 기반한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2018년)된 「이용자 점수합산제」의 고려요소별 타당성 및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을 활용한 ‘이용자 타당성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 2021년 이용자 선정현황을 분석하고 델파이 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9개 세부 서비스별 이용자 선정기준표 개선(안)을 도출, 최종 결과를 2022년 이용자 선정기준표에 반영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사업 발

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하였고,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자문 및 돌봄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 사업개발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잇는 광주형 사회서비스 모형(사업명 :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 인큐베이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내실화 및 시장 안정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안정화 기준 마련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일자리 관련 광주운영기준(제공인력 최저임금 기준, 제공인력 공동활용기준, 제공기관 등록 사업수 제한)을 마련 및 적용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 우수 제공인력에 대한 광주광역시장상을 표창하였으며, 제공인력 증가율, 정규직 증가율 등 일자리 현황분석 지표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더불어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대비 2020년 종사자 수 0.7%, 정규직 1.2%, 평균 월급여 1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자리 관련 광주운영기준 마련 전·후 비교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 및 효과성 관리 강화]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 사업의 효과성 분석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을 집중관리사업군으로 분류하여 제공기관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또한 서비스 자체의 효과성 검증 측정도구의 양질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및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향후 환류계획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경조사 등 단기 업무공백 및 출산, 병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대체인력지원사업 종사자 직무역량강화교육’ 실시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간호조무사, 조리원 지원 3월 시작

광주광역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종사자 직무역량강화교육 실시



사회복지현장 중심의 맞춤형 대체인력 파견을 위해 2022년 종사자를 추가 채용하고,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교육은 대체인력지원사업 종사자들이 현장에 파견되었을 때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유형별로 기관의 특성이나 근무 시 유의사항, 업무내용들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이이행 사회복지사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 등 현장에서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조호권 원장은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2022년에는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장하고, 대체인력을 추가로 채

용했다.”면서 “현장에 파견되는 종사자들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3월부터 광주광역시 자체 시범사업으로 대체인력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의 조리원과 간호조무사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뽀뽀 돌봄이 아닌, 펀(fun)한 돌봄을 추구한다.”

사회서비스원의 꽃은 돌봄, 그 중 돌봄의 최 일선에서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북구종합재가센터를 만나보자.

북구종합재가센터

뽀뽀 돌봄보다 더 FUN한 돌봄!



안녕하세요! 북구종합재가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인 “북구종합재가센터”는 재가장기요양사업을 비롯하여 틈새돌봄서비스, 보건복지 전달 체계 강화 시범사업, 스마트+ 안심 지킴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공공의 돌봄은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으나 돌봄의 길은 북구종합재가센터가 처음 발돋움 한 지난 11월 추운 겨울처럼 아직도 취약하고 척박하기만 합니다. 이 대립적인 상황에서 그 길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북구종합재가센터의 20명의 가족은 한결같은 마음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 기피 영역과, 위기 어르신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살던 곳 중심의 돌봄 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구종합재가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울림이 있는 소통**”입니다.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맥에서 1:1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돌봄 제공자와 어르신 간의 소통이 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어르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 행동의 숨은 의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깊은 마음의 눈을 가져야 비로소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매일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만남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66 울림이 있는 소통 99



그래서 저희 북구종합재가센터의 가족들은 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 부모님을 돌보듯이, 아니 앞으로 내 자신이 받고 싶은 돌봄서비스”**를 생각하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Key Point”** 곧 **“마음을 여는 열쇠”**를 항상 보듬고 다닌답니다.

현재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종합재가센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정책 계획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해 차별화된 독자적인 운영모델이 없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민간재가센터와 별반 다른없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시간적 사각지대 즉, 야간 서비스, 주말/휴일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연속적 돌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이나 현재 장기요양 수가체계나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새롭게 시작이 예정된 특별한 사업이 있나요?

“암(암만!) 행(행복해야제!) 어사, 우렁각시 출두야!”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안심지킴이 건강프로그램(IoT)” 204

명의 대상으로 분기에 10명씩 무작위선정(취약계층우선, 남성우선)하여 “생필품 꾸러미상자”와 “일상생활지원(취사,청소,세탁 등), 오락활동(실버인지놀이, 발 마사지, 함께 요리해서 먹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센터 관리직과 사회복지사, 제공인력 등이 산타복을 입고 대상자 댁을 방문하여 그분들과 의미있는 활동과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장기요양(방문요양)서비스, 틈새돌봄서비스” 대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한 돌봄을 해소할 수 있는 기대효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2022년 각오와 힘찬 포부를 한 분씩 이야기해주세요?

심연순 센터장

핀란드의 유명 사진작가가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출근 시간대 몇 명의 사람을 10년 동안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과연 사진에 찍힌 사람들이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들에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진작가의 말을 빌려 결론을 내린다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쫓기듯 허둥지듯 뛰어가는 사람은 계속 허둥지둥하였고, 구부정하게 걷는 이는 여전히 구부정하게, 귀에 이어폰을 꽂는 이는 여전히 이어폰을, 행색이 깔끔한 이는 여전히 깔끔하게, 걸음걸이도 표정도 심지어 옷차림도 별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지난 10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향후 10년 후에는 달라져 있을까요? 저는 이 사례를 접한 순간 **“가슴이 먹먹하고 머리가 땡!”** 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아침 “Self Talking” 을 합니다.

“Awakeness” 즉, “늘 깨어있자”, 그래서 매일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 10년 후 성장해 있을 내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늘 사방팔방으로 달아나는 제 마음을 깨어있게 하며 복구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해 온 지난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한 해로 기억됩니다. 물론 “따뜻한 돌봄, 행복한 일자리” 라는 가슴을 뜨겁게 하는 화두가 저와 함께했기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었음도 밝힙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년간 복구종합재가센터의 운영 현황을 “PDS” 경영사이클로 보고 드릴까 합니다.

P(Plan) : 장기요양(방문요양) 신규 대상자 30명 발굴, 틈새돌봄 서비스 300명(IoT돌봄 포함), 제공인력(요양보호사) 1인당 2명 매칭

D(Doing) : 복구 관내 취약계층 75세대 독거 어르신들 대상 IoT돌봄기기 설치를 시작으로, 관내 28개 행정복지센터,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8개의 종합사회복지관, 복구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매일 현장에서 만나는 구민들에게 복구종합재가센터와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 활동 적극 진행. 더불어 복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위원으로 활동

S(See) : 장기요양(방문요양) 신규대상자 30명, 틈새돌봄 서비스대상자 331명(IoT돌봄 포함), 제공인력(요양보호사) 1인당 평균 2명 매칭 목표 달성

이 모든 것이 소중한 복구의 제공인력(요양보호사)들이 물심양면으로 활동한 결과물임을 말씀드리며, ‘2022년 올해도 무등산 호랑이의 정기를 받아 복구에서 북 치고 장구 치며 신명나게 “뻔한 돌봄이 아닌 편(Fun)한 돌봄”을 실천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얼씨구” “복구종합재가센터 파이팅!” 마법의 추임새를 힘차게 외쳐보며 이만 줄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지은 파트장

돌봄은 누군가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외부와 접촉이 단절된 지금 꼭 필요한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언제 어디서든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곳, 예상치 못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곳에 발을 내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돌봄의 씨앗 속 보이지 않는 곳에는 발로 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무거운 책임감과 자긍심이 있습니다. 사무실 한 편에 앉아 업무를 하는 저에게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에 좋은 돌봄이 있다는 말처럼 올해 2022년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소중한 활동으로 돌봄의 가치에 대해 공유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의 울타리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항상 고민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어령 사회복지사

저의 업무는 장기요양(방문요양)으로 그동안 센터의 방문요양 사업을 살펴본 결과 센터장님과 파트장님이 케이스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상 웃으시며 친절하게 업무를 알려주시는 센터장님, 그리고 사랑스러운 언니 같은 파트장님의 도움으로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이야기하는 등 여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구종합재가센터의 “가산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만희 요양보호사(IoT 전담관리자)

지난 11월 중순, 돌봄기기 담당을 해보겠느냐는 센터장님의 제의를 받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컴퓨터 활용능력이 다소 부족



하여 걱정이 앞섰지만, 센터장님과 권파트장님이 잘 도와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두려움을 안고 전담관리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전화로 점검 시 차갑게 쏘이는 남자 어르신들의 대답, 통명스럽게 전해지는 여자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마음의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하나,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하지?,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고통을 공감하게 되면서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타인의 친절함이나 관심에 무덤덤하고 익숙지 않다는 것을...

진심으로 공손함과 따뜻한 말씨로 어르신들을 대하려고 노력한 결과 지금은 서로 농담도 주고 받고 사소한 일상도 공유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사는 모두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명언이 확인되는 경험을

IoT 전담관리자로 활동하면서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며칠 집을 비우게 되면 걱정말라고 미리 전화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져서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따뜻하고 친절의 "IoT 전담" 전문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잘 준다는 것” 고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줄 때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준다. 그러므로 잘 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자선행위는 받는 사람이 거지가 되도록 하는 행위이고, 박애주의자들은 세련된 경멸인줄 모르고 웃으면서 적선을 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겸손하며, 잘 준다는 것

- 정희경 교수 인터뷰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서 장애인복지를 가르치고 있는 정희경 교수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최종증장애인 자립생활 현장에서 일을 해왔고, 장애인자립생활 운동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운동가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운동가와 운동현장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립생활이라는 철학과 가치 만큼 이세상에 아름다운 가치와 철학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웃음)



광주사회서비스원에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 영역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시는지?

광주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현장에서는 사람 중심, 클라이언트 중심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제공자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수요자(이용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지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현장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인데요.

“잘 준다는 것” 고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줄 때 그 사람이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준다.

그러므로 잘 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자선행위는 받는 사람이 거지가 되도록 하는 행위이고, 박애주의자들은 세련된 경멸인 줄 모르고 웃으면서 적선을 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우리는 과연 서비스 제공자로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잘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자기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강조를 하는 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렇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제공인력들이 서비스를 잘 줄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사회복지분야 인재를 길러 내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천 가치 등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년 우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특성상 학부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을 포함해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졸업할 때 반드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겸손해야 한다”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와 지식 이런 것들은 다 권력이거든요. 물론 각자의 학생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겠지만 그것이 자칫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화를 잘 못내는 편입니다. 타고나 기질상 그게 잘 안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제가 화낼 때를 보면 사회복지사인데이

“겸손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스스로에게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자를 보고, 꾸준히 그들에게 묻고 또 묻고.... 어렵지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그것만큼 쉬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머리 아프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또 물어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제부터 어떤 것이 힘들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당신에 저에게 말해주시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을 텐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야 학생을 가르키는 사람이니까.... 역시 최근에 취업했다는 말을 학생들로부터 들을 때 가장 보람됩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요. 요즘 졸업시즌이고 취업시즌이잖아요. 자신들의 진로를 잘 찾아가는 제자들을 볼 때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보람이 있고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바라는 점보다는 기대하는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광주의 사회복지현장은 어느 지역보다 역동적이고 치열한 곳이며, 창조성이 강하고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을 가진 사업들이 아깝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지역에서도 뿌리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 들을 볼 때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 때 마다 저 자신 광주사람이 다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ㅎㅎ) 이러한 사업들이 시들지 않고 스스로 뿌리를 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과 인력들에게 든든한 자원이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지난 8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2021. 9. 24.(금)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2. 3. 25.(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2018년 5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 표발의 된 이후 2019년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이 시행했던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 해 2022년까지 17개 광역 단체로 확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공공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김진희 교수
광주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인 2020년 6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전인 2018년 9월부터 민관협의체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자문단(TF)을 구성 하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정책토론회, 시민공청회, 복 지 분야별 간담회 등 30여 차례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복지현장과 전문가, 시민의 요구에 따라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긴급돌봄서비 스와 틈새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였고, AI도시 광주에 걸맞은 IOT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였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등의 시 설을 수탁 받아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 하였고, 기존 민간복지시설과 협력을 통해 상생을 도 모하였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2021)

사회서비스원은 첫째)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의 운영, 둘째)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통한 각종 재가서 비스 통합·연계 제공, 셋째)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긴 급돌봄서비스의 제공, 넷째) 사회서비스 제공 민간기 관의 서비스 질 향상 견인을 위해 표준 운영모델 마련· 배포, 회계·법무·노무 등 상담 및 자문,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점검 지원 등 4가지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기 관이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 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광주광역시 사 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보다 확보된 위상 으로 운영되길 바란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 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화·저출산·양극화로 돌봄의 필요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욕구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재 이를 제공하는 주체의 대부분은 민간기관들이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중심으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확충과 사회서비스원 도입으로 공공성 담보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간병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사회서비스원법은 그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제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더 좋은 돌봄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고, 부처와 지자체간, 지역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직접 고용으로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표준 모델 활용과 운영 컨설팅을 통해 민간영역의 서비스 질 향상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 실현의 중추기구로 자리잡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의 경우 돌봄시대에 보다 돌봄인력의 처우개선과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의 질을 향상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을 수행하리라 기대한다.

돌봄과 관련된 지역적 욕구를 파악하여, 시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특화된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기대해본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돌봄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돌봄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보다 특화된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의 개발이 요청된다. 예컨대, 가족 내 돌봄이 가장 요구되는 가족구조의 변화로는 맞벌이와 1인 가구를 예로 들 수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 내 돌봄이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7개 특광역시 중 맞벌이 비중 48.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전국 평균 45.4%, 서울 39.6%, 부산 38.1%, 대구 41.4%, 인천 42.7%, 대전 46.7%, 울산 37.9%), 2021년 12월 기준 1인 가구 비중이 광주광역시의 경우 39.8%(서울 43.1%, 대전 41.2%, 부산 39.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돌봄의 공백해소적 접근과 동시에 시민의 돌봄욕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예방적 차원의 사회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광주형 통합돌봄모델을 개발하여 보다 공공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여 만족하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이 되길 바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18년 ‘커뮤니티케어추진단’을 신설하고 오는 2026년까지 전국에 이를 보편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2021)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서비스원의 주요특성을 다수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대상자가 지역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제주형 사회서비스원은 복지 욕구가 있는 대상자 발굴 시 다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결 및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선도적으로 도모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와 종합재가센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서비스원은 지역 내 돌봄대상과 다양한 돌봄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하여 돌봄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를 수행하기를 바란다.





언터처블 1% 우정 Untouchable



언터처블: 1%의 우정 Intouchables, 2012
감독 올리비에르 나카체, 에릭 토레다노



피곤하지만 잠들기 싫은 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주말,
영화와 책에 목마른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어떤 취향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소개할 영화와 책은
여러분들의 구미를 당길거예요!

편견을 깬 우정

영화 언터처블은 상위 1%와 하위 1%의 우정을 그린 영화다. 주인공 필립은 상위 1%의 귀족이지만, 불시의 사고로 목을 다치는 부상을 입는다. 필립은 그 사고로 목 아래부분이 마비되고, 자신을 도와줄 도우미를 구한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면접장에 온 도우미는 하위 1% 무일푼 인생의 흑인 남성이다. 흑인인 도리스는 전과자였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것뿐이다.

하지만 필립은 도리스의 자유로운 행동과 말투에 오히려 호감을 느끼고, 2주간 자신을 간호하면서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내기를 제안한다. 필립은 목 아래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리스는 24시간 그의 손발이 되어준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필립은 본인을 전혀 전신마비 환자로 대하지 않는 도리스 덕택에 자신이 환자인 것을 잊게 되고, 점점 마음을 열게 된다.

도리스와 필립은 오페라를 구경하기도 하고 서로가 모르는 생활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의지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도리스는 필립에게 편지를 주고받는 펜팔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필립은 그저 편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하지만 도리스는 포기하지 않고 직접 편지에 적인 번호로 전화한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필립은 그 여성과 가끔 통화하는 사이가 되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던 중 도리스는 일을 그만두고 필립은 새로운 도우미를 구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도리스를 더욱 그리워한다. 결국, 필립의 상태는 점점 망가지며 안 좋아지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도리스는 필립에게 여행 제안을 하고 필립을 멋지게 준비시켜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여행의 진짜 목적은 펜팔로 연락하던 여성을 만나는 것이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게 된다.

영화의 제목인 언터처블(Untouchable)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나무랄 데 없는, 건드릴 수 없는'과 같은 의미로 어쩌면 백만장자인 필립을 의미한다. 두 번째 뜻은 '손을 댈 수도 없을 정도로 천한 사람을 말한다. 바로 도리스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렇게 중의성을 지닌 단어 하나로 너무 다른 두 사람을 나타내는 것 같다.

너무 다른 이 둘이 1%의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도리스가 필립에게 보낸 마음은 동정이 아니라 배려였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역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배려가 아닌 동정을 보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잊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급격한 수명연장에 당황 하셨나요?



멋지게 나이 드는 기술 - 내가 당신보다 행복한 이유
존 레인 지음 | 고기탁 옮김 | 베이직북스 | 2012년 출간

99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누구나 오래 산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길어진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이다.

『멋지게 나이 드는 기술』

이 책에서는 **노년이 특별한 4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첫째, 불확실한 젊은 시절에 비해 만족스러운 안정감이 존재한다.
- 둘째, 일에 치여 살던 시절에 비해 자유가 있다.
- 셋째, 미숙하고 피상적 존재에서 연륜이 있고 이해심이 있는 존재로 거듭난다.
- 넷째, 부산함에 방해받지 않는 평온함이 있으며,
새로운 흥미를 찾아 잠재성을 탐험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유쾌하게 나이 드는 아홉 가지 방법과 멋지게 나이 드는 기술 스텝세 가지를 제안한다. 나는 제안의 많은 내용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유쾌하거나 멋질 수 없다.

갑자기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수명연장을 이루어낸 것일까? 그 원인으로 현재의 환경, 위생, 영양, 보건의 그 차이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많은 연구의 결과다. 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비바람을 막아주고, 추위와 더위를 극복하기 좋은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 위생은 상,하수도의 정비와 냉장고와 세탁기, 청소기 등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영양에서 보면 지금은 오히려 과잉섭취를 고민할 정도다. 보건의 우리 주변에 병원과 보건소가 가까이에 있고, 건강검진이 정례화되고 있다. 그럼 현재의 환경 · 위생 · 영양 · 보건의 가능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적 여건의 개선이다.

한스 로슬링 교수가 200개 국가를 대상으로 1810년부터 2009년까지 200년 동안 소득과 수명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관한 TED 동영상을 보면 1810년에 영국과 네덜란드의 수명이 40세 정도였을 뿐 대부분 나라는 40살을 넘지 못했다. 당시 소득 수준은 연간 400달러가 채 되지 않아서 가난하고 병약했다. 1900년이 되면서 연간소득이 4,000달러를 넘어서는 나라를 중심으로 평균수명이 50세가 되었다. 1948년 무렵에 스웨덴과 미국이 가장 많은 소득과 70세 정도의 가장 긴 수명을 보여주고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여전히 수명이 50세에 미치지 못했다. 그 후 각국의 소득 증가에 따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모든 급격함 뒤에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 요소가 더 많다.우리도 평균수명 60살을 염두에 두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오늘날에는 100살을 산다고 한다. 예상하지 못한 수명연장에 당황스럽다.

늘어나는 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며 노년을 긍정적으로 보내기는 어쩌면 불가능한 숙제인지 모른다. 미리 들여다보고 먼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누구나 꿈꾸지만 쉽지 않은 멋진 노년의 삶을 이 책으로 계획해 보자.

ESG



ESG경영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ESG 경영’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ESG 경영이 도입된 배경은?

기존에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에 대해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CSR경영방식을 채택했어요.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선, 기부, 환경보호 활동은 기업의 필요나 선택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평가 시 비재무적인 친환경 사회책임 활동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기업의 이미지 구축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ESG경영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떤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나요?

사회서비스원 임직원들은 ‘지구를 지키는 사서원의 다짐’ 캠페인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고고 챌린지’ 광주환경운동연합과의 업무협약,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해용 캠페인’등으로 친환경 경영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어떤 기업들이 ESG에 열심히 인가요?

LG전자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디자인을 위해 제품에 터치 방식을 채택하는 전자제품들이 많아지고, 스마트함을 강조하기 위한 음성인식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어떨까요? 터치컨트롤 방식을 촉감으로 버튼을 구별하기 힘든 시각장애인들, 소리를 듣고 말로 명령하기가 힘든 청각장애인들에게 이런 스마트 기기들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LG전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접근성 자문단'을 구성하고 제품에 대한 자문을 구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 제품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상품 제조 후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 감소를 위해 친환경 포장 설계 지침서를 개발해 전제품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서에 따라 포장재 사용량 감량률, 포장부피 감량률 등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연 2회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LG의 친환경 경영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해외의 어떤기업들이 ESG에 열심히 인가요?

인기 일등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의 ESG경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친환경원두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자체 친환경 원두 구매 가이드라인을 통해 커피 원산지의 환경을 보호하며 사회,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켜 최상질의 원두커피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계 커피 농가와 30년 동안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둘째, 플라스틱 제품대신 종이빨대와 나무스틱을 3년 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던 종이빨대도 이제는 많이 보편화 되어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텀블러에 음료구매 시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일 오후 2시~5시 매장 내 최소 조명만 유지한 채 전기를 절약하고, 친환경 매장 설계, 친환경 종이컵 제작 등 많은 활동들을 실행하고 습니다.

커피 대표 브랜드로써 국내 동종업계에 친환경적인 바람을 불러일으켜주고 고객들의 참여도 유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점에 짹짹 박수 보냅니다.



맑고 투명하게, 언제나 공정하게! 함께 만들어요.
 청렴한 광주, 청렴한 사회서비스원!
 알아두면 유용한 청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자.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어린이집원장, 유치원교사 포함), 언론사 대표와 그 임직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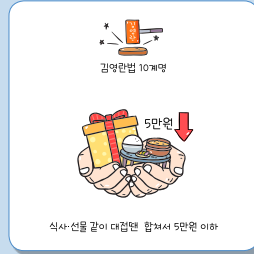
부정청탁금지

❏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는 처벌받나요?

❏ 상급 공직자는 부정청탁에 따라 하급 공직자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도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거절하지 않고 지시에 따른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일 부정청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품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상 선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의미합니다. 사고·의례 등을 목적으로 수수하는 선물은 가액범위[5만원이하(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 이하)]를 넘지 못합니다.

*유가증권 예)상품권, 기프트콘, 관람권

❏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지체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합니다. 지체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부강의 등

❏ 신고없이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 과태로 부과 대상인가요?

A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 휴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A 휴직자의 경우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초과 사례금 수수시에도 신고 및 반환을 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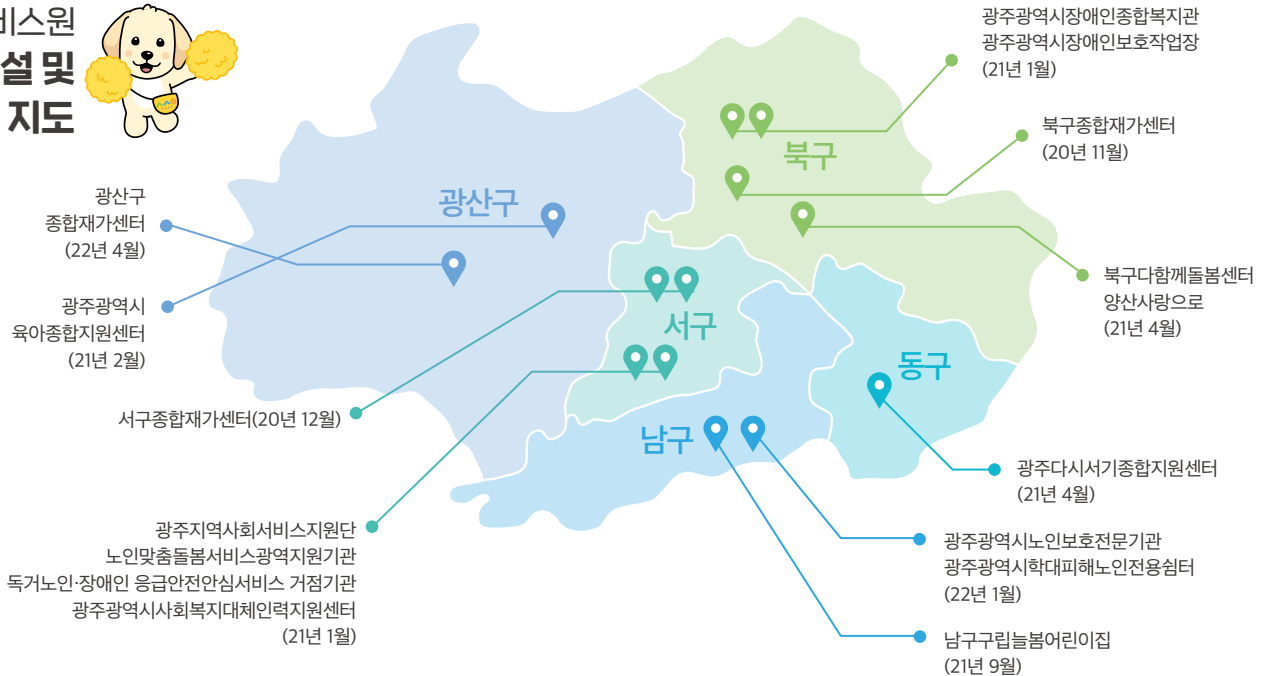
❏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이 되나요?

A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않았을 때 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식비 등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및 사업단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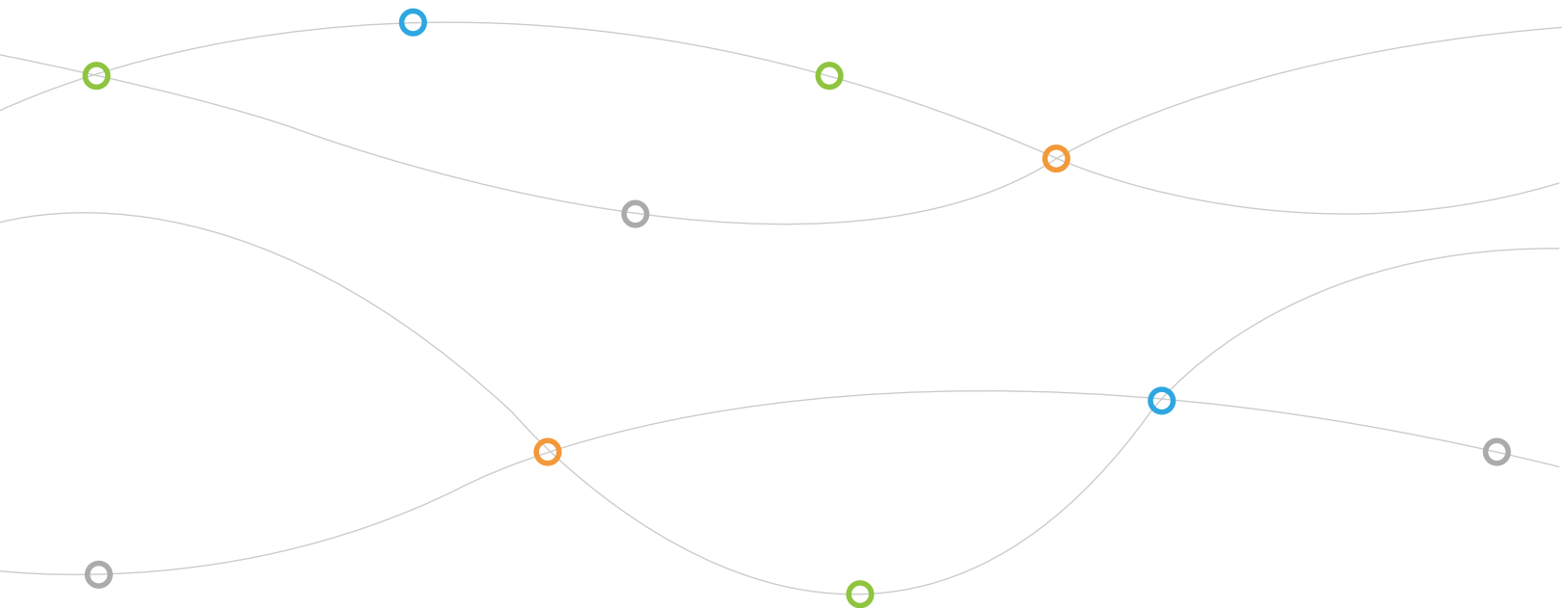
종합재가센터	구분	기관명	주 소	연락처
	1	서구종합재가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1층 서구종합재가센터	062)716-2400
	2	북구종합재가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3, 3층 북구종합재가센터	062)716-6300
	3	광산구종합재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83, 2층 광산구종합재가센터	062)716-6500
어르신 욕구반영 재가서비스 제공, 틈새돌봄서비스 제공 (※서구/북구 IOT특화프로그램 추진)				
소속시설	4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19 장애인 상담, 사례지원, 기능향상지원, 가족지원, 권익옹호, 평생교육, 직업지원 등	062)513-0977
	5	광주광역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19 중증장애인 작업활동, 직업훈련, 취업알선, 구직활동 등	062)513-4998
	6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강변로100 어린이집 지원(교육, 컨설팅, 대체인력 파견)및 가정 육아서비스 지원	062)714-3636
	7	북구다함께돌봄센터 양산사랑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30 관리소 2층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놀이·학습지도, 특성화프로그램)	062)571-5242
	8	광주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177-1 노숙인 현장보호와 주거, 의료, 고용 지원, 상담 및 연계 등	062)716-7400
	9	남구구립 늘봄어린이집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중앙로 21(중흥5클래스리버티 내)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	062)710-1100
	10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7(빛고을노인건강타운 체육관)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관리 등 전문상담 서비스 노인학대예방·인권 교육등 제공	062)655-4155 / 1577-1389
	11	광주광역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입소 및 생활지원, 전문상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치유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단	12	광주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8층 사회서비스 발굴·기획, 제공기관 육성, 일자리 창출, 품질향상 지원	062)716-2410~4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8층 취약노인 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062)607-5237~9
	1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거점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8층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062)607-5236
	15	광주광역시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8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파견지원	062)607-5245~47



“아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하게 잘 살구(狗)”

광주광역시사회복지센터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Gwangju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0 우체국보험회관 8층

TEL 062.607.5200 FAX 062.607.5219 <https://gwangju.pass.or.kr>